



곽병찬
한겨레신문 편집 부국장

아빠의 질투

“음~, 엄마는?”
 “옆에 있어. 왜?”
 “음~.”
 “전화를 했으면 용건을 얘기해야지. 왜 그래.”
 “저, 음~, 나, 오늘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자고 오면 안돼?”

아내의 이동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영 개운치 않았다. 잔뜩 부어 있었다. ‘하필이면 왜 아빠가 받는 거야.’ 속으로 아들은 그렇게 투덜대고 있었다. 엄마와는 통할텐데, 아빠가 받았으니 일은 글렀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맞다. 홍철이 네 이놈 공부는 못 하지만, 아빠 생각만큼은 제대로 읽었다. 대뜸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용현이가, 학교에서 국악 몇곡 들으라고 했는데, 음~개네 집에 국악 씨디가 없는데, 음~내가 집에 있는 거 갖고 가서, 음~같이 들으며 공부하다가, 음~거기서 자고 올려고.” 말이 이리 저리 엉켰다. 자고 싶다는 대목만 또렷했다.

“그래, 외박하겠다는 거지?” 목소리에 날이 섰다. 다짜고짜 잔소리에 들어갔다. 음식은 가리지 말고, 잠자리는 가려서 자라고 했다. 독서실

에서도 공부 안하는 네가 친구집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엄마가 음악선생님인데, 국악을 듣고 공부하려면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게 좋지 네가 가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친구 엄마도 일단 아들 친구가 온다니까 말리진 않겠지만 내심 썩 내켜하지 않으실거다.

이러쿵 저러쿵. 안돼. 집에서 다시 이야기하자. 아들이 집에 왔다. 그러나 외박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더 이상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입이 잔뜩 부은 채 제 방으로 쪽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등교하자, 아내가 입을 열었다.

“어제 밤, 당신이 잠들고 난 뒤 홍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그리 많아.’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고, 보연이 보다 덜 적극적인 것도 그 때문 아닌가 생각도 들고...”

순간 나는 낭패했다. 우선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방법이 얼마나 나쁜지 잘 알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를 더 낙담케 한 것은 이런 교육적 측면이 아니었다. 아들

은 그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 나와는 얘기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엄마에게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시시콜콜 다 하면서 말이다. 친구 관계에 대해 나나 아내가 걱정할 때 슬그머니 친구들을 폄평한 것도 엄마에게였고,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불만, 선생님께 대든 이야기 등도 제 엄마에게만 했다. 나는 엄마를 통해 전해듣기만 하는 신세였다.

아들은 나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조차 않는구나. 공연히 침울해졌다. 그런 아들놈이 미워지기도 했다. 그리고 아들놈은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복수를 하고 있구나. 두고 보자. 나도 모르게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건 일종의 질투였다.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아내에게 '우리가 홍철이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무엇이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나의 복잡한 마음을 눈치

채지 못한 아내는 "당신이 해도 될 일을 내게 미루냐"고 가볍게 반발했다. 자세히 설명하기도 면구스런 일인지라 "그냥 당신이 물어봐 달라"고만 말하고는 집을 나섰다.

사실 내가 질투하고 안 하고를 떠나 아들 눈 밖에 난 것은 당연했다. 아들과 나 사이를 이어 주던 유일한 끈 목욕탕 스킨십도 중단된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우리 나라 아버지들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그러나 내 경우는 하루 30분도 채 안될 것이다. 저녁에는 거의 못 본다. 그런데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하지 말라' 였다니, 아들이 뭐가 이뻐서 아빠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는가.

그런데도 질투심이 발동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아버지다. PPFK

저녁에도 거의 못 보는 아이에게 한다는 말이 고작 '하지 말라' 였으니 이쁜 아빠일 수가 있나...

